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4. 4. 25. (목)	
경제환경전문위원	김재현	803-5023
경제환경정책지원팀장	박대식	803-1525
담당자	남경모	803-1528

이태손 의원, “시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지역 내 산림교육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8일 ‘달서 별빛 유아숲체험원’ 현장 방문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5일(목) 경제환경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폭염, 폭우, 열대야 증가 등의 기상이변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그로 인해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0.75℃ 상승했다고 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산림이 주목받고 있으나, 도시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

존과 시민 삶의 질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역 내 산림교육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8일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숲속 나무집, 곤충 아파트, 짚라인 등 야외 체험 학습장을 둘러보고 목재문화관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참관했다.

이태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산림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지원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